농가 유형별 소득변동 분석

황 의 식* · 문 한 필**

Key words: 농가(farm household), 소득변동(farm income instability), 평균-분산(mean-variance), 농가부채 비율(farm debt ratio)

ABSTRACT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gree of the farm income instability due to the outsider factors. The degree of the farm income instability is measured and analysed as its' mean and variance during 1998~2002. In order to categorize the degree of instability in the farm economy, the farm household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ome characteristic variables such as farmer's age, standardized farming size, the level of household receipt, and the size of household debt and its ratio to the asset. This paper analysis the farm income fluctuation with the panel data of the 1998~2002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in Korea. The results implies the importance of policies for income stabilization.

1. 서론
2. 분석모형 설정
3. 경영주 연령 및 표준 영농규모별 소득변동 실태
4. 부채 비율 및 현금 흐름 유형
5. 농가부채 규모 및 부채 비율별 소득변동 실태
6. 정책적 시사점

1. 서 론

무역자유화협정(FTA)과 도하 개발협상(DDA) 등의 추진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어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농업여건 변화 과정에서 부채 규모, 경영규모 등 농가의 특성에 따라 농가 간 소득변동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외부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가 유형별 소득변동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어떤 농가가 시장개방의 영향을 크게 받는지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가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많은 연구와 정책들이 제시되었으나 농업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가 유형별 소득변동 실태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이 연구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농가 유형별로 농가소득이 어떤 형태로 변동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일한 농가를 표본으로 한 1998~2002년의 농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일정 기준에 의해 농가를 유형화하고, 이 유형에 따른 농가들의 소득변동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농가소득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얻은 기초 자료는 앞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가경제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가소득의 불안정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요인분해법이 주로 이용된다. 그러나 실제 농가소득의 변동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량경제학적 방법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잘 파악할 수는 있지만 경영개선의 방향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요소를 선정하여 이에 따라 농가 유형을 구분하고, 농가 유형별 농가소득 불안정 정도를 분석하는 접근법으로 농가경제 불안정 요인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특정 유형의 농가일수록 농가소득 불안정 실태가 더 심하다면 그런 유형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농가경제의 불안정을 해결하는 방향일 것이라는 근거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불안정 요인을 파악하지 않더라도 어떤 농가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었는가를 제시하여 준다.

이 연구에서는 경영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에 의해 농가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불안정 실태를 분석하였다. 농가를 유형화하는 경영요소로는 경영주 연령, 농업경영 규모, 부채 비율, 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부채 규모 등이다. 이들 경영요소들 중 한 요소만 고려하는 것보다는 두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농가를 유형화하는 분석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주 연령이 많고 적음과 동시에 경영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 4가지 유형의 농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농가의 소득변동 정도는 농가변동 유형별 농가분포, 소득변동 정도 등을 적용하였다. 즉, 농가소득 증감과 변동형태에 따라 농가를 구분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2. 분석모형 설정[2]

소득 불안정 실태를 분석하데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평균-분산> 분석 방법이다. 평균소득 수준과 소득변동의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불안정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균-분산> 분석방법은 농가소득 변동 유형별로 농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평균소득을 사용하면 초기 연도부터 소득이 증가하였는지, 그 후 감소하였는지를 파악하기 곤

[1] 김성룡, 박준기 등이 소득 불평등도 변화를 분석한 것이 있다.

[2] 구체적인 도출 과정은 황의식(2004) 참조.

란하다. 또한 분산의 개념에서도 평균소득이 높은 농가일수록 분산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득변동을 적합하게 분석하지 못하게 된다. 동일한 소득변동 차이라 할지라도 농가가 느끼는 것은 소득이 높은 농가보다 낮은 농가가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평균에 대응된 개념으로 다음 식과 같이 새로운 변수를 정의한다.

$$\text{즉,}\quad \mu x_{it} = \frac{(x_{it} - \mu_i)}{\mu_i} \cdot 100$$

여기서 i는 농가를 나타낸 것이고, t는 연도(1998~2002)를 나타낸 것이며, x는 소득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μx는 t 연도의 소득(x)이 초기 연도 소득수준(μ_i)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이 값이 양(+)의 값이면 소득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의 값이면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평균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다음 식과 같이 새로운 평균개념인 ε을 정의할 수 있다.

$$\text{즉,}\quad \varepsilon_i = E_t(\mu x)$$

이 ε의 값은 기준 연도에 비해 분석 기간의 연평균 소득 증감 정도를 나타낸다. ε의 값이 양(+)이면 그 농가는 기준 연도보다 소득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이면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소득이 정체되어 있다면 0의 값으로 나타난다.

농가소득의 변동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농가소득이 매년 일정한 규모로 성장하는 농가를 고려하여 이와 비교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매년 소득 증가 규모가 α 배인 농가를 보면, 연도별 소득수준은 다음과 같다.[3]

$$x_{i1} = \mu_i$$
$$x_{i2} = (1+\alpha)\cdot\mu_i$$
$$x_{i3} = (1+2\alpha)\cdot\mu_i$$
$$x_{i4} = (1+3\alpha)\cdot\mu_i$$
$$x_{i5} = (1+4\alpha)\cdot\mu_i$$

그러면 $\mu x = (1-t)\cdot 2\alpha$이므로 연평균 소득 증가 정도를 나타내는 ε_i 값은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4]

$$\varepsilon_i = \frac{(\alpha + 2\alpha + 3\alpha + 4\alpha)}{5} = 2\alpha$$

소득변동의 폭인 분산은 평균인 ε와 관계 속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

[3] 농가소득이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보다 농가소득 성장률이 일정한 비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이 더욱 올바른 개념이다. 그러나 이는 다음에 설명하는 분산(δ)가 평균인 ε과 일대 일 대응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농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varepsilon - \delta$)의 좌표선상에서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가소득이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4] 연평균 소득 증가율과 ε 값을 대응시킬 수 있다. 분석기간('98~'02) 5년 동안 연평균 소득이 5%씩 증가하였다면 ε 값은 10.5이고, 연평균 10%씩 증가하였다면 ε 값 22.1%이다. 여기에서는 계산의 편리를 위하여 연평균 소득 증가율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 증가 규모가 일정한 값(α)으로 증가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1. 농가소득 증감 및 변동에 의한 농가 구분[6]

변동 \ 증감	-5% 이하	-5~0%	0~5%	5~10%	10% 이상
40% 이하	그룹 Ⅰ-1	그룹 Ⅱ-1	그룹 Ⅲ-1	그룹 Ⅳ-1	그룹 Ⅴ-1
40% 이상	그룹 Ⅰ-2	그룹 Ⅱ-2	그룹 Ⅲ-2	그룹 Ⅳ-2	그룹 Ⅴ-2

증감 정도를 나타내는 ε 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농가가 안정적으로 소득이 증가하였다고 볼 때의 연도별 소득수준을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x^*_{i1} = \mu_i$$
$$x^*_{i2} = (1 + \frac{1}{2}\varepsilon_i) \cdot \mu_i$$
$$x^*_{i3} = (1 + \varepsilon_i) \cdot \mu_i$$
$$x^*_{i4} = (1 + \frac{3}{2}\varepsilon_i) \cdot \mu_i$$
$$x^*_{i5} = (1 + 2\varepsilon_i) \cdot \mu_i$$

그러면 안정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변동의 정도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함으로써 올바른 소득변동을 측정할 수 있다.

$$\text{즉, } \delta x_{it} = \frac{(x_{it} - x_{it}^*)}{x_{it}^*}$$

그에 따라 농가의 소득변동을 나타내는 표준편차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delta_i = \sqrt{E_i[(\delta x)^2]}$$

이와 같이 분산을 정의하면 분산은 앞서 농가소득 증감을 나타내는 평균인 ε_i과 일대 일로 대응시킬 수 있다. ε_i 값의 수준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농가의 경우에는 δ_i의 값이 0이고, 소득변동이 클수록 증가하게 된다. 농가소득이 평균적으로 동일하게 증가하였더라도 연도별로 소득변동이 심하면 δ_i의 값이 증가하므로 δ_i 값의 수준에 의해 농가를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농가소득의 변동형태에 따라 농가를 유형화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표 1>이다. 농가소득 증감의 정도(ε)에 의해 농가를 5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소득변동의 정도에 의해 2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6]

3. 경영주 연령 및 표준 영농규모별 소득변동 실태

농가를 유형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경영주 연령과 경영규모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다.

농가의 성장단계 즉,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농가가 직면하는 경제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경영주 연령에 의해 농가를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주 연령이 30~40대인 농가는 전업으로 영농하는 경우

[6] 개별 농가의 연평균 소득 증감률과 연평균 ε 값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ε 값이 아닌 연평균 소득 증감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 과정에서는 ε 값을 가지고 농가를 구분하였다. 연평균 5% 소득이 증가하면 ε 값은 10.5%이고, 10%이면 22.1%이다.

가 많으며, 경영규모도 확대하고 가계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반면 경영주가 60대 후반인 농가는 이제 영농을 그만두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농업소득 의존도가 낮으며 소득이 부족하여도 자산에 의해 가계비를 충족할 수 있으므로 소득불안정의 위험이 낮다. 따라서 경영주 연령이 농가경제 불안정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경영주 연령별로 농가소득의 변동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농가는 농업활동 이외에도 비농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경영규모에 의해 농가를 구분하는 것이다. 농업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농업활동의 의존도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를 결정하는 지표가 경영규모이다. 경영주 연령이 낮아 적극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농업의존도가 낮다면 농산물 시장개방 등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정책 대상으로서 위치는 낮아진다. 반면 경영주 연령이 많더라도 농업의존도가 높으면 농산물 시장개방의 영향을 많이 받고, 농업의 불안정 위험 요인이 농가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된다. 따라서 경영규모별로 농가소득의 변동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농가의 경영규모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경작면적을 적용한다. 자작지든 임차지든 농가의 경작면적이 어느 정도인가가 경영규모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협소하여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고, 제한된 토지자원을 자본투자로 대체하는 농가가 많다. 즉, 우리 농업이 시설농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시설농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가의 노동력 활용에서 차이가 있다. 시설농업은 노동력 활용도를 높이기 때문에 농업소득 창출기회가 확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작면적만을 고려하면 오히려 경영규모가 적은 농가일수록 농업소득이 높아 경영규모 축소가 유리한 방향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시설투자도 경영규모로 환산하여 함께 고려하는 것이 농업생산구조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편차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시설규모를 경영규모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설농업의 발달로 농업용 고정자산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여건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농업용 고정자산을 경작규모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농지의 수익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경지면적으로 환산하는 것이 있다 (최양부 등 1983, 41). 즉, 다음 식과 같이 농업용 고정자산 규모를 경영규모로 환산하여 경영규모를 평가하는 표준 영농규모(SSF: Standardized Size of Farming)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농업용 고정자산을 농지의 실제가격이 아닌 수익지가로 다시 평가한 것은 농가가 농지를 활용하거나 자본시설을 활용한 것이나 비용 측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농지의 실제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농지의 농업용 가치만을 고려하고, 자산적 가치로서의 역할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2. 경영주 연령 및 표준 영농규모에 의한 농가 유형 구분

	60세 이하(L)	60세 이상(H)
6,000평 이하(L)	A-LL	A-LH
6,000평 이상(H)	A-HL	A-HH

표 3. 농가 유형(A)별 농가 분포 및 농가경제 주요지표

단위: 호, 평, 천원, (%)

	A-LL	A-LH	A-HL	A-HH
농가호수	954 (40.6)	611 (26.0)	689 (29.3)	94 (4.0)
표준영농규모	3,370	2,899	10,203	8,314
경작규모 임차면적 (임차비율)	2,804 1,096 (39.1)	2,523 854 (33.9)	8,537 4,325 (50.7)	7,014 2,965 (42.3)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소득 비율)	21,873 7,099 (32.5)	15,717 5,657 (36.0)	30,489 19,484 (63.9)	25,176 14,568 (57.9)
농가부채	16,750	7,012	36,812	20,581

$$SSF = L_C + \frac{FA}{L_P}$$

여기서 SSF : 표준 영농규모

L_C : 경작면적

FA : 농업용 고정자산

L_P : 농지의 수익지가(평당 25,000원)

농가의 경영주 연령과 경영규모를 고려하여 농가를 유형화 한 것이 <표 2>이다. 경영주 연령은 60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표준영농 규모는 6,000평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60세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앞으로 영농을 전업적으로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표준 영농규모 6,000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2ha가 전업농가인가 부업농가인가를 구분하는 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하이면서 경영규모가 6,000평 이상이면 농업의 의존도가 높아 농업 여건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분석표본의 농가 분포를 보면, 60세 이하이고 경영규모가 6,000평 미만인 농가가 40.6%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60세 이하의 농가이면서 경영규모가 6,000평 이상인 농가도 29.3%나 분포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농가에서는 경영규모가 큰 6,000평 이상인 농가의 비율은 매우 낮다. 즉, 경영규모가 큰 전업적 농가는 60세 이하의 농가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농가는 경영규모가 매우 큰 10,203평에 해당되고 있다.

농가 유형별 표준영농 규모를 보면, (A-HL)유형 농가가 가장 큰 규모인 10,203평이고, 다음으로 (A-HH)형 농가가 8,314평

표 4. 농가 유형(A)별 농가소득 변동 정도의 농가 분포

단위: 호, (%)

	Ⅰ	Ⅱ	Ⅲ	Ⅳ	Ⅴ	합계
A-LL	215 (22.5)	135 (14.2)	142 (14.9)	178 (18.7)	284 (29.8)	954 (100.0)
A-LH	154 (25.2)	104 (17.0)	94 (15.4)	93 (15.2)	166 (27.2)	611 (100.0)
A-HL	159 (23.1)	121 (17.6)	113 (16.4)	87 (12.6)	209 (30.3)	689 (100.0)
A-HH	32 (34.0)	11 (11.7)	14 (14.9)	17 (18.1)	20 (21.3)	94 (100.0)

이다. 이들 농가는 임차지 비중에서도 높다. (A-HL)형 농가는 임차비율이 50.7%이고, (A-HH)형 농가의 임차비율은 42.3%이다. 경영규모 확대에서 임차의존도가 높다.

농가의 1998년에서 2002년까지의 연평균 소득규모를 보면, 경영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이 많다. (A-HL)형 농가의 농가소득은 30,489천원이고 농업소득은 19,484천원이어서 농업소득 의존도가 63.9%에 이르고 있다. (A-HH)형 농가의 농가소득은 25,176천원이고 농업소득은 14,568천원으로 농업소득 의존도가 57.9%에 이르고 있다. (A-LL)형 농가는 농가소득이 21,873천원인데 반해 농업소득은 7,099천원으로 농업소득 의존율이 32.5%로 매우 낮다.

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 규모는 경영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많은 편이다. (A-HL)형 농가의 부채 규모는 36,812천원으로 가장 많고, (A-LL)형 농가는 16,750천원이다.

이와 같은 농가 유형별 농가소득 변동 실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표 4>이다. (A-LL)형 농가에서는 연평균 10% 이상 소득이 증가한 농가(Ⅴ그룹)의 비율이 29.8%이고, 연평균 5% 이상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Ⅰ 그룹)의 비율도 22.5%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A-HL)형 농가에 있어서는 연평균 10% 이상 농가소득이 증가한 농가(Ⅴ 그룹)의 비율이 30.3%로 가장 높고, 연평균 소득이 5% 이상 감소한 농가(Ⅰ 그룹)의 비율은 23.1%이다.

문제가 심각한 농가는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영농규모도 큰 농가인 (A-HH)형 농가이다. 이들 농가에서는 연평균 10% 이상 농가소득이 증가한 농가(Ⅴ 그룹)의 비율이 가장 낮은 21.3%이고, 연평균 5% 이상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Ⅰ 그룹)의 비율이 가장 높은 34.0%에 이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경영주 연령이 높고, 농업의존도가 큰 농가에서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의 비율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농가인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경영규모가 적은 농가(A-LH)와 경영주 연령이 젊고 경영규모가 큰 농가(A-HL)의 농가소득 변동 실태를 비교하면, (A-LH)형 농가일수록 소득 감소 폭이 큰 농가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A-HL)형 농가는 소득 증가율이 높은 농가에 더욱 많이 분포하고 있다. 소득변동 폭에서는

표 5. 농가 유형(A) 및 소득변동 실태별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단위: 천원

	A-LL		A-LH		A-HL		A-HH	
	소득	부채	소득	부채	소득	부채	소득	부채
Ⅰ-1	19,973	12,704	14,820	4,250	27,980	35,275	26,714	13,269
Ⅰ-2	19,059	26,376	17,432	12,856	22,376	48,470	16,866	38,750
Ⅱ-1	22,265	10,179	14,805	4,203	30,923	30,077	29,440	16,153
Ⅱ-2	15,724	25,283	14,380	9,251	27,177	32,883	6,357	16,197
Ⅲ-1	21,904	16,014	14,945	7,019	31,802	31,005	25,120	6,369
Ⅲ-2	17,722	20,581	11,699	6,749	28,091	44,395	22,807	21,725
Ⅳ-1	23,635	14,379	16,666	7,797	32,639	34,823	28,070	19,072
Ⅳ-2	23,392	15,213	17,961	13,232	31,654	47,843	-11,259	249,412
Ⅴ-1	23,565	17,452	16,695	8,246	33,737	34,915	24,160	26,217
Ⅴ-2	20,044	30,606	16,058	8,770	28,496	59,182	29,558	8,626

(A-LH)형 농가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농가소득이 증가한 농가에서는 (A-HL)형 농가가 소득변동 폭이 더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가소득 변동 유형별 농가소득과 농가부채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표 5>이다. 전체적으로 소득 증가율이 높은 농가일수록 농가소득이 많고, 동일한 소득 증가율의 농가이면 소득변동 폭이 적은 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다. 농가부채 규모와 농가소득 증감률 간에는 연계성이 낮다. 그러나 동일한 소득 증감률의 농가이면 농가부채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소득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일수록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농가부채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다. 농가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농가부채 규모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소득 증감률이 동일한 농가에 있어서는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일수록 농가소득이 적고 오히려 부채 규모가 많은 편이다.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하이고 표준 영농규모가 6,000평 이상인 농가(A-HL)의 경우를 예로 보자. 이들 농가에서 농가소득이 연평균 5% 이상 감소한 농가(Ⅰ 그룹) 중 소득변동 폭이 40% 이하인 농가의 호당 평균 농가소득은 27,980천원이고 농가부채는 35,275천원이다. 반면 소득변동 폭이 40% 이상인 농가의 경우에는 호당 평균 농가소득이 22,376천원인 반면 농가부채는 48,470천원으로 매우 높다. 또한 연평균 농가소득이 5~10% 증가한 농가(Ⅳ 그룹)의 경우 소득변동 폭이 40% 이하인 농가의 호당 평균 농가소득은 32,639천원인 반면 농가부채는 34,823천원이다. 반면 소득변동 폭이 40% 이상인 농가는 호당 평균 농가소득이 31,654천원으로 약간 낮고, 농가부채는 47,843천원으로 매우 많은 편이다.

4. 부채 비율 및 현금 흐름 유형

농가경제의 위험성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농가경

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농가소득이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금 흐름 상의 적자 상태를 의미한다. 농가가 단기적으로 적자상태이면 부채를 증가시키거나 자산을 매각하여 부족한 현금 흐름을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 그만큼 농가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 농가경제가 장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은 자산 대비 부채 비율로 측정한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으면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가경제에서 고려하고 있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40%와 70%이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하이면 농가경제는 장기적으로 건전한 상태에 있다고 본다. 이런 농가가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적자이더라도 자산의 매각을 통해서나 혹은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서 농가 스스로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농가는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상 적자이어도 아직까지는 건전한 농가로 파악한다.

그런데 농가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70%라는 것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0%를 상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라고 본다.[7] 이런 농가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적자이면 농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경제 위험성 정도를 가지고 농가를 구분할 때는 단기 현금 흐름과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의 두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즉, 현금 흐름이 적자인가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인가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여기에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70%로 설정하지 않고 40%로 설정한 것은 단기 현금 흐름의 적자를 농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이더라도 70% 이하이면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상태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70% 사이이고 현금 흐름이 적자이면 단기적으로 위험한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농가경제의 위험성을 분석할 때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의 기준을 40%로 설정한다.[8]

표 6. 현금 흐름 및 부채 비율에 의한 농가 유형 구분

	부채 비율 40% 이하(L)	부채비율 40% 이상(H)
적자농가(L)	B-LL	B-LH
흑자농가(H)	B-HL	B-HH

이러한 기준에 의해 농가를 구분한 것이 <표 6>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농가는 현금 흐름이 적자이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가(B-LH형)이다. 이런

[7] 기업에 있어서도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면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의 지표가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의 200% 이하이다.

[8] 박성재 외(2002), 미국에서는 현금 흐름과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가지고 농가경제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있다. 농가가 현금 흐름이 적자이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이면 위험한 농가로 파악하고 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농가가 얼마나 출현하고 있는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표 7. 농가 유형(B)별 농가 분포 및 농가경제 주요지표

단위: 호, 평, 천원, (%)

	B-LL	B-LH	B-HL	B-HH
농가호수	457 (19.5)	143 (6.1)	1,446 (61.6)	302 (12.9)
표준영농규모	4,208	5,770	5,507	6,908
경작규모	3,427	4,621	4,658	5,944
임차면적 (임차비율)	1,296 (37.8)	2,536 (54.9)	1,956 (42.0)	3,455 (58.1)
농가소득	15,788	13,791	25,343	26,522
농업소득 (농업소득 비율)	6,369 (40.3)	6,032 (43.7)	11,895 (46.9)	13,412 (50.6)
농가부채	12,351	61,318	11,415	55,110

표 8. 부채 비율 및 현금 흐름 농가 유형별 소득변동 실태

	Ⅰ	Ⅱ	Ⅲ	Ⅳ	Ⅴ	합계
B-LL	143 (31.3)	80 (17.5)	60 (13.1)	56 (12.3)	118 (25.8)	457 (100.0)
B-LH	45 (31.5)	16 (11.2)	22 (15.4)	12 (8.4)	48 (33.6)	143 (100.0)
B-HL	323 (22.3)	237 (16.4)	237 (16.4)	238 (16.5)	411 (28.4)	1,446 (100.0)
B-HH	49 (16.2)	38 (12.6)	44 (14.6)	69 (22.8)	102 (33.8)	302 (100.0)

농가는 현재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본다. 반면에 현금 흐름이 적자이지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하인 농가(B-LL형)는 단기적으로 위험성이 약간 있더라도 위험한 농가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구분한 농가 유형별 분포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표 7>이다. 대부분의 농가인 61.6%의 농가(B-HL형)는 가계수지도 흑자이고 부채 비율도 40% 이하로 건전한 상태이다. 그러나 6.1%의 농가(B-LH형)는 현금 흐름도 적자이고 부채 비율도 40% 이상으로 아주 높은 상태이다.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금 흐름이 적자이지만 아직도 부채 비율이 낮은 농가(B-LL형)가 1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은 흑자이지만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B-HH형)는 12.9%이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은 농가는 임차비율도 높고 농가부채 규모가 매우 크다. 반면 현금 흐름이 적자인 농가는 농가소득이 1,600만원 이하로 아주 적다. 이런 농가일수록 농업소득이 적고 농업소득 의존도도 낮다. 특히 현금 흐름이 적자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은 농가의 상태를 보면, 농가소득이 약 1,300만원으로 가장 낮은 상태이면서 부채 규모는 약 6,1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매우 위험한 농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현금 흐름이 흑자이면서 부채 비

율이 40% 이하로 낮은 농가는 농가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부채 규모는 1,100만원 수준으로 적은 상태이다. 농가경제가 매우 건전한 상황이다. 현금 흐름이 흑자이면서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가는 부채 규모가 크지만 농가소득도 2,600만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부채 규모만을 평가하여서는 농가경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 유형별 1998~2002년까지 농가소득 변동에 따른 농가 분포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표 8>이다. 농가소득이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한 현금 흐름이 적자인 농가들 중 농가소득이 연 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이 31% 이상으로 가장 높다. 가장 건전한 농가로 구분되고 있는 농가인 현금 흐름이 흑자이고, 부채 비율이 40% 이하인 농가(B-HL형)를 보면 22.3%의 농가가 연 5% 이상 소득이 감소하였고, 28.4%의 농가는 연 10% 이상의 소득이 증가하였다. 반면 현금 흐름이 흑자이면서 농가부채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은 농가가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농가소득이 연 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이 16.2%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의 비율도 28.8%로 가장 낮다. 또한 농가소득이 연 10% 이상 증가한 농가의 비율도 33.8%로 가장 높다. 이는 농가가 부채를 활용하면 농가성장에 큰 기여를 한다는 부채의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를 잘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금 흐름이 적자이고 부채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은 농가도 부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채를 활용하지 못하면 농가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이런 농가 중 농가소득이 연 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이 31.5%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의 현금 흐름이 흑자인 농가를 자산 대비 부채 비율에 따라서 B-HL형 농가와 B-HH형 농가의 소득 증감률 및 변동 폭의 농가 분포를 보면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에서 소득이 감소한 농가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연 5% 이상 증가한 농가의 경우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가 그룹(B-HH형)에서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가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농가소득이 연 10% 이상 증가한 농가 중 소득변동 폭이 40% 이상인 농가의 비율을 보면 B-HL형 농가에서는 19.5%인데 반해 B-HH형 농가에서는 24.5%로 더 높다. 농가소득이 연 0~5% 감소한 농가에서도 소득변동이 40% 이상인 농가의 비율은 B-HL형 농가가 5.1%인 반면 B-HH형 농가는 15.8% 이다. 이와 같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으면 농가소득 증대에서는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소득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소득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가소득 증감률이 동일한 농가들 중 소득변동 폭에서 차이가 있는 농가들의 농가소득 규모와 부채 규모를 보면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표 9>이다. 그러나 대부분에 있

표 9. 농가 유형(B) 및 소득변동 실태별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단위: 천원

	B-LL		B-LH		B-HL		B-HH	
	소득	부채	소득	부채	소득	부채	소득	부채
Ⅰ-1	15,597	11,398	15,265	45,102	23,083	9,444	24,324	59,736
Ⅰ-2	12,881	22,163	7,486	84,688	26,550	15,068	25,665	56,354
Ⅱ-1	15,503	5,553	18,131	39,675	25,294	10,461	26,410	58,742
Ⅱ-2	13,504	12,688	12,744	52,399	25,771	19,792	20,947	34,734
Ⅲ-1	17,548	8,236	16,162	53,981	24,482	10,689	27,446	52,503
Ⅲ-2	12,649	17,919	9,332	69,908	24,310	13,024	21,277	67,445
Ⅳ-1	17,820	14,460	17,985	55,269	25,220	8,266	25,960	47,859
Ⅳ-2	15,683	10,998	2,601	104,753	28,523	22,177	32,475	48,417
Ⅴ-1	17,093	11,202	15,716	51,098	26,944	13,414	28,078	54,020
Ⅴ-2	14,219	20,525	14,381	71,428	26,633	14,633	25,414	74,652

어서는 소득변동 폭이 클수록 농가소득이 낮고 농가부채가 큰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금 흐름이 적자이고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B-LH형)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농가 중 농가소득이 연평균 0~5% 증가한 농가(B-LH 중 Ⅲ형 농가)를 보면, 소득변동 폭이 40% 이하인 농가의 농가소득은 16,162천원이고 농가부채는 53,981천원이다. 반면 소득변동 폭이 40% 이상인 농가의 농가소득은 9,332천원이고 농가부채는 69,908천원으로 상대적으로 나쁜 상태이다.

현금 흐름이 흑자이지만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B-HH형)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소득변동 폭이 40% 이상으로 높으면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농가부채가 더 많다. 그러나 이런 농가에서는 소득이 연 5% 이상 감소한 농가에서는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가부채가 많으면 소득변동 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금 흐름이 흑자이고 부채 비율이 낮은 농가(B-HL형)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일수록 부채 규모는 더 많지만 농가소득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농가부채는 그 규모보다는 현금 흐름의 상태 그리고 부채 비율의 정도에 따라 농가소득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현금 흐름이 나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데 부채 규모가 많으면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5. 농가부채 규모 및 부채 비율별 소득변동 실태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농가부채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가소득 변동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가소득이 동일하게 증감하였다 하더라도 부채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가소득의 변동 폭이 컸다. 또한 부채 규모가 큰 농가에서는 소득이 크게 증가한 농가가 있는가 하면 농가소득이 오히려 크게 감소한 농가도 있었다. 농가부채 규모에 의한 농가경제의 위험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

지만 농가부채규모가 농가경제의 변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농가부채 규모별로도 농가소득 변동 실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10. 부채 규모 및 부채 비율에 의한 농가 유형 구분

	부채비율 40% 이하(L)	부채비율 40% 이상(H)
부채 3천만원 이하 농가 (L)	C-LL	C-LH
부채 3천만원 이상 농가 (H)	C-HL	C-HH

농가부채규모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에 따라 농가를 유형화 한 것이 <표 10>이다. 여기에서 농가부채가 3,000만원인 것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구분하였다. 3,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 어떤 타당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평균농가의 부채 규모가 2,100만원 정도이므로 이보다는 많으면 부채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어 선택한 것이다. 통상 부채 규모가 3천만원 이상이면 고액부채 농가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앞의 2절에서 설명한 근거에 의해 40%를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농가를 구분하고, 각 유형별 농가경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표 11>이다. 대부분의 농가인 72.5%의 농가는 부채 규모도 적고 부채 비율도 낮은 C-LL형 농가 그룹에 속해 있다. 그러나 여전히 13.6%의 농가는 부채 규모도 크고 부채 비율도 높은 상태(C-HH형)이다.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일수록 임차비율이 높은 상태이고, 부채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시설투자를 확대하여 표준 영농규모와 경작규모간의 차이가 크다. 또한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부채 규모도 크다.

부채 규모는 크지만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C-HL형)가 가장 높은 소득을 얻고 있고(32,419천원), 농업소득 의존도도 높다.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농가는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비율도 높은 농가(C-HH형)이다. 부채 규모는 적지만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C-LH형)의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18,214천 원 수준이고, 농업소득은 7,052천원으로 농가소득의 38.7%에 불

표 11. 농가 유형(C)별 농가 분포 및 농가경제 주요지표

단위: 호, 평, 천원, (%)

	C-LL	C-LH	C-HL	C-HH
농가호수	1,703 (72.5)	125 (5.3)	200 (8.5)	320 (13.6)
표준영농규모	4,660	4,045	9,750	7,518
경작규모	4,005	3,722	7,402	6,220
임차면적 (임차비율)	1,601 (40.0)	2,603 (69.9)	3,466 (46.8)	3,377 (54.3)
농가소득	21,948	18,214	32,419	24,078
농업소득 (농업소득 비율)	9,599 (43.7)	7,052 (38.7)	18,814 (58.0)	12,598 (52.3)
농가부채	7,359	20,869	48,091	71,260

표 12. 농가 유형(C)별 농가소득 변동 정도의 농가 분포

단위: 호, (%)

	Ⅰ	Ⅱ	Ⅲ	Ⅳ	Ⅴ	합계
C-LL	413 (24.3)	293 (17.2)	269 (15.8)	270 (15.9)	458 (26.9)	1,703 (100.0)
C-LH	27 (21.6)	18 (14.4)	18 (14.4)	32 (25.6)	30 (24.0)	125 (100.0)
C-HL	53 (26.5)	24 (12.0)	28 (14.0)	24 (12.0)	71 (35.5)	200 (100.0)
C-HH	67 (20.9)	36 (11.3)	48 (15.0)	49 (15.3)	120 (37.5)	320 (100.0)

과한 실정이다.

농가부채규모가 많다는 것이 농가경제의 위험성을 의미하지도 않고, 부채 비율 등 다른 지표와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조건이면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농가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농가부채 규모와 부채 비율에 의해 유형화 한 농가 그룹별 농가소득의 증감 실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표 12>이다. 부채도 많고 부채 비율도 높은 농가(C-HH형)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농가소득이 연 10% 이상 증가한 농가의 비율이 37.5%인데, 이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과 1999년에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낮아진 농가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에서와 같이 이들 농가의 소득이 부채는 많으나 부채 비율이 낮은 농가(C-HL형)보다도 소득이 낮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농가 그룹인 부채는 적으나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도 농가소득 증감률에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가소득 연 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이 21.6%로 가장 낮고, 연 5~10% 농가소득이 증가한 농가의 비율도 25.6%로 가장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당 평균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것은 초기 연도의 농가소득이 크게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농가도 외환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채 비율이 높으면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이 크면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가 적고 부채 비율도 낮은 농가(C-LL형)와 부채도 많고 부채 비율도 높은 농가(C-HH형)의 소득 증감 및 변동 폭에 의한 농가 분포를 비교하면 부채가 많고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가 더 양호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농가소득이 증감하였을 때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일수록 농가소득이 더 낮고, 부채는 더 많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표 13>이다. 연 0~5%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에서는 부채는 많으나 부채 비율이 낮은 농가가 농가소득이 가장 높고, 부채도 많고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는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가 농가소득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또한

표 13. 농가 유형(C) 및 소득변동 실태별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단위: 천원

	C-LL		C-LH		C-HL		C-HH	
	소득	부채	소득	부채	소득	부채	소득	부채
Ⅰ-1	19,837	6,619	16,476	20,376	32,885	46,017	23,684	72,786
Ⅰ-2	21,358	10,112	16,436	19,659	22,279	50,438	12,800	89,588
Ⅱ-1	21,814	6,288	15,753	19,316	38,560	50,621	28,952	73,100
Ⅱ-2	19,214	8,908	17,885	18,704	26,039	50,067	17,610	47,574
Ⅲ-1	22,170	7,328	19,508	20,574	34,264	42,584	25,860	65,744
Ⅲ-2	20,527	7,731	6,937	27,710	21,322	40,654	14,589	77,363
Ⅳ-1	23,130	6,307	20,171	19,599	35,599	47,012	28,060	67,812
Ⅳ-2	21,090	9,623	29,211	26,546	32,708	58,671	19,714	91,165
Ⅴ-1	23,516	8,062	19,114	22,288	35,202	47,078	27,167	63,157
Ⅴ-2	21,388	8,911	10,915	25,057	29,892	55,006	21,123	79,583

농가소득이 연 5~10% 증가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면 부채는 많지만 부채 비율이 낮은 농가(C-HL형)가 가장 농가소득이 높다. 부채도 많고 부채 비율도 높은 농가(C-HH형)는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에서 농가소득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6. 정책적 시사점

농가를 유형화하여 농가소득 변동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조건의 농가가 상대적으로 외부 충격에 잘 견디는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농가를 유형화하는 기준으로는 경영주 연령, 표준 영농규모, 가계수지 수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 그리고 부채 규모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향후 농가들의 경영 개선방향과 소득문제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가 된다.

먼저 경영주 연령과 표준 영농규모에 의해 농가를 유형화하여 분석한 결과, 경영규모가 적고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농가의 평균소득이 가장 낮았고, 경영규모도 크고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하인 농가가 가장 높은 농가소득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농가소득 변동에서는 경영규모가 크고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농가가 가장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농가소득 증가율이 높은 농가들이 농가소득이 높고, 동일한 소득 증가율이면 소득변동 폭이 적은 농가일수록 농가소득이 높고 부채 규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음으로 가계수지 수준과 자산 대비 부채 비율에 의해 농가를 유형화하였다. 가계수지가 적자이고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위험한 농가가 6.1%이고, 가계수지가 흑자이고 부채 비율이 40% 이하인 농가는 61.5%이다.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농가는 가계수지가 적자이고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이고,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농가는 가계

수지가 흑자이고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이다. 이러한 현상은 농가소득 증감률에 의한 농가 분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계수지가 흑자이고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일수록 농가소득 변동률이 좋은 농가가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에서는 부채 규모도 크고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의 비율도 많다. 또한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일수록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즉, 부채 비율이 높으면 소득 안정을 위해 부채관리에 더욱 많은 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부채 비율과 부채 규모에 의해 농가를 유형화하였다. 부채 규모로는 3,000만원을 적용하였다. 부채 규모가 3,000만원 미만이고 부채 비율이 40% 이하인 농가가 대부분으로 72.5%를 차지하고 있고, 부채 규모가 3,000만원 이상이고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가는 13.6%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농가는 부채 규모는 적으면서도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이고, 농가소득이 가장 농가는 부채 규모는 많으나 부채 비율이 낮은 농가이다. 부채 규모도 크고 부채 비율도 높은 농가는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이 낮았고, 특히 농업소득이 낮았다. 농가소득의 변동에서는 부채 규모도 크고 부채 비율이 낮은 농가들이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득 증가율이 연 10% 이상인 농가가 많다는 것은 역으로 외환위기 때 소득이 크게 감소한 농가가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농가소득 안정정책과 농가경영개선 방향에 대한 다음의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경영규모가 크고 경영주 연령이 고령인 농가일수록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하다. 이는 농업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 60세 이상의 농가는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농가는 경영규모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60세 이하의 젊은 농가는 규모화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탈농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대응책이다. 경영규모가 적으면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채 비율의 관리에 더욱 많은 주의를 하여야 한다. 농가부채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부채 비율이 오히려 농가소득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일수록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가 많고 농가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 부채가 많은 농가라 할지라도 높은 소득수준을 얻는 농가가 있으므로 부채관리는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해서는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부채가 많은 농가일수록 농가소득 변동 폭이 큰 농가가 많다. 그리고 부채는 많으나 부채 비율이 낮은 농가가 가장 높은 소득을 얻고 있다. 이는 부채관리를 적절히 잘 하면 부채가 없는 것보다 부채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농가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채를 활용하더라도 자신의 자산

규모와 비교하여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영관리 방안이다.

참고문헌

김성룡, 이계임. 2002. 『농가의 소비지출구조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재 등. 1999. 『중장기 농가부채대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2004.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요인분해." 『농촌경제』 27(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내원. 2002. "농가경영안정정책의 체계화방안." 「농정연구』 4: 97-121.

최양부 등. 1983. 『농가경제의 유형과 성격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2004. "소득변동 수준에 의한 농가 분포 분석." 『농촌경제』 27(4호): 1-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원고 접수일 : 2005년 12월 1일
원고 심사일 : 2005년 12월 8일
심사 완료일 : 2005년 12월 19일